

투데이 ebs

네이버에 '유대종' 검색!

A11. 박재삼, 「고향 소식」

아, 그래, / 건재약(乾材藥) 냄새 유달리 구수하고 그윽하던
한낮가 대실 약방…… 알다 뿐인가
수염 곱게 기르고 풍채 좋던 / 그 노인께서 세상을 떠났다
고?

아니, 그게 벌써 여러 해 됐다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 팔포(八浦) 웃동네 모퉁이
혼자 늙으며 술장사하던 / 사랑(蛇梁)섬 창권(昌權)이 고모,
노상 동백기름을 바르던 / 아, 그분 말이라, 바람같이 떴다
고?

하기야 사람 소식이야 들어 무얼 하나,
끝내는 흐르고 가고 하게 마련인 것을……
그러나 가령 둔덕에 오르면 / 햇빛과 바람 속에서 군데 군데
대밭이
아직도 그전처럼 시원스레 빛나며 흔들리고 있다든지
못물이 먼 데서 그렇다든지 / 혹은 섬들이 줄면서 떠 있다든지
요컨대 그런 일들이 그저 / 내 일같이 반갑고 고맙고 할 따
름이라네.

- 박재삼, 〈고향 소식〉

1.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하여 죽음의 허무와 극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o,x)
2. 청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적 화자가 대화를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o,x)
3.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추상화시키고 있다.(o,x)
4.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o,x)
5. 변치 않는 자연사는 시적 화자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o,x)

A12.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1. 가정과 답변, 자문과 자답의 방식을 통하여 안타까움과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O,X)
2. 도치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o,x)
3. 음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표준어법을 변화시켰다.(O,X)
4.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를 호쾌하고도 선명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O,X)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5.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음운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안타까움의 정서를 잘 드러

내고 있다.

- ② 3음보와 4음보의 적절한 조화로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더욱 내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도치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위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다. 언어의 조탁미는 이러한 비극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 이러한 성향은 이 시의 특정 시구의 반복, 가정형 문장, 주변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① '내 혼자의 마음'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1연에 '그래도 어디나 계실것이면'이라는 가정의 표현을 통해서 아직까지 그러한 존재를 만나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2연에 '티끌'은 화자와 대상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상징되어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3연에 '날같이 아실 이가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거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4연에 '향 맑은 옥돌'은 화자의 마음을 알아줄 이에게 보일 화자의 은은하고도 뜨거운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B11. 김광섭, 「생의 감각」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내게서 간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 1. 시간의 흐름을 변화하여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다.(O,X)

- 2. '여명'의 종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은 화자의 상황과 관련되며, 2연의 깨달음의 내용과 이어진다.(O,X)
- 3. '흐린 강물', '황야'는 화자로 하여금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는 대상이다.(O,X)
- 4. 부정적 상황 속에서 얻은 생명,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O,X)
- 5. '닭이 운다'를 통해 과거 화자가 겪었던 상황이 촉발하는 비애감을 확인할 수 있다.(O,X)

B12. 박재삼, 「겨울 나무를 보며」

(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 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곶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A)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B)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때_글은_때에_그은. 때가 묻어 검게 된.

*앞대_남쪽.

*울력_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나)

스물 안팎 때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 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로써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다)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1. (나)에서는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O,X)
2. (가)와 (다)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O,X)
3. (나)의 1연에 '갈피를 못 잡는'에서는 방황하던 화자의 과거 모습이 드러난다.(O,X)
4. (나)의 2연에 '이제'와 3연 '비로소'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된 화자의 모습에 주목하도록 한다.(O,X)
5. (나) '겨울나무'는 화자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O,X)
6. (가)의 A와 B는 화자의 회상의 의미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다.(O,X)

A11. o, o, x, o, o

A12. o, o, o, x, 3, 3

B11. O, O, X, O, X

B12. X, X, O, O, X, O

